

【서평】

『플라톤: 서양철학의 기원과 토대』(남경희 지음, 아카넷, 2006)과 『플라톤과 유럽의 전통』(이상인 지음, 이제이북스, 2006)에 대한 서평

강 성 훈*

1.

올 여름에 국내 학자들에 의한 플라톤 연구서 두 권이 출간되었다. 매우 반가운 일이다. 한 동안 외국어를 모르는 사람은 플라톤을 공부하는 것이 불가능하던 때가 있었다. 이 당시에는 국내 학자들에 의한 플라톤 연구서에 대한 필요가 그렇게 시급한 일은 아니었다고 할 수도 있겠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플라톤의 주요 대화편 10여 편에 대한 원전번역을 가지고 있고, 플라톤 전집의 번역 작업도 한창 진행 중에 있다. 이제는 더 이상 한글 번역도 없는 마당에 연구서가 무슨 소용이냐는 식의 변명이 통하지 않게 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시기에 국내 학자에 의해서 한국어로 쓰인 플라톤 연구서 두 권을 만날 수 있게 된 것은 시의적절한 일이라고 하겠다.

두 저서는 서로 다른 연구방법을 취하고 있다는 점에서 또한 의미가 있다. 다양한 접근방법에 의해서 플라톤을 이해하고자 하는 시도들은 우리의 플라톤 이해를 풍부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 서울대학교 철학과

『플라톤과 유럽의 전통』에서 이상인 선생님이 취하고 있는 방법, 혹은 연구의 정신은 한 마디로 하자면, “고대의 정신을 고대의 관점에서 재발견”(18쪽)하자는 것이다. 그동안 철학사에서 고대가 ‘고대’로서가 아니라 ‘전근대’로서 파악되어 왔다는 것이 이상인 선생님의 문체의식이다. 이런 파악 방식에서는 “고대는 그 자체로 완성된 시기가 아니라 근대에 와서 비로소 완성되는 불완전한 시대의 표상일 뿐”(62쪽)인 것으로 평가될 수밖에 없다. 이상인 선생님은 “철학사는 현재의 시각에서 각 시대의 사상적 우열을 가리는 시대 이상의 불공정한 각축장이 되어서는 안 된다”(16쪽)고 주장하며, “근대의 관점에서 완성되기 이전에 완성된 고대의 자기 이해의 고유한 면모를 밝[히고] … 고대가 어떻게 소멸, 변형, 오해, 왜곡되었고 마침내 잊혀졌는지… 검토”(69쪽)하고자 한다.

『플라톤과 유럽의 전통』이 고대를 고대의 관점에서 재발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면, 『플라톤: 서양철학의 기원과 토대』는 현대의 관점에서 플라톤을 고찰하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을 듯하다. 남경희 선생님은 자신의 책의 목적을 “플라톤 철학의 이해에 그치지 않고, 그를 서양철학의 토대를 정초한 철학자로 자리매김함으로써 서양철학의 기원과 토대를 밝히고자”(14쪽) 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남경희 선생님에 따르면, “플라톤이 제시한 객관성의 이념은 여전히 유효”(28쪽)하지만, 적어도 현대에는 객관성이 플라톤의 이데아처럼 철학적 최상급의 세계를 상징함으로써가 아니라 다른 통로를 통해서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남경희 선생님은 “언어의 규정력에서 객관성의 근거를 찾으려는 시도는 여전히 플라톤의 정신에 동조적인 것”이라고 진단하며, “플라톤은 비트겐슈타인 등의 현대철학자들, 그리고 동아시아의 전통 만큼 언어를 중시했다는 점에서 그의 통찰은 기본적인 노선에서 아직도 적실성을 발휘한다고 여겨진다”(29쪽)고 생각한다.

고대를 고대의 관점에서 재구성한다는 것과 현대인의 입장에서 고대를 고찰한다는 것은 반드시 서로 배타적인 방법론이라고 볼 수는

없다. 고대를 온전히 고대의 관점에서만 바라본다는 것은 가능하지 않은 일이며, 더 나아가 설사 그것이 가능하다고 해도 바람직한 일은 아닐지도 모른다. 현재의 우리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과거라면, 우리가 그에 대해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다고 할 수도 있을 듯싶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현재의 관점에서 마음대로 과거를 재단하는 일도 곤란할 것이다. 고전을 공부하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두 방법론이 모두 필요하고 따라서 실질적인 문제는 양자의 적절한 조화 지점을 찾는 것이 될 것이다.

실제로 위에서 이야기한 두 책의 차이점은 상대적인 강조점의 차이이다. 이상인 선생님은 자신의 방법이 “고대 철학을 다시 현재의 철학으로 만날 수 있는 최선의 방식”(69쪽)이라고 주장한다. 오히려 근대의 눈으로 채색된 고대를 바라보는 것이 우리와 고대의 직접적 만남을 어렵게 한다는 것이 이상인 선생님의 진의인 것이다. 마찬가지로 남경희 선생님은 “고전을 읽는 주요 이유는 현대적 관점에서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상을 이해하고, 새로운 시각과 사유들을 드러내어 현대인의 사유 지평을 넓히는 데에 있다”(392쪽) 주장한다. 다만, “단지 그 텍스트에만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근저의 논리까지도 탐색하여 그것의 설득력을 찾”기 위해서 “플라톤이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언명, 시사하지 않았더라도, 그를 대신하여 논리를 전개하고 그의 주장을 옹호하는 입장에서 플라톤의 주장을 해석”(392쪽)하는 과정에서, ‘설득력’에 대한 현대인으로서의 남경희 선생님의 입장이 개입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논평자가 위에서 남경희 선생님의 책이 현대의 관점에서 플라톤을 고찰하려는 것을 목적하고 있다고 한 것은 이런 정도의 제한된 의미로 받아들여야 하겠다.

2.

남경희 선생님의 『플라톤: 서양철학의 기원과 토대』는 플라톤 철학

의 전반적인 모습을 조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국내 학자들의 저작 중에서 플라톤 사상의 이러저러한 측면을 다룬 저서들은 다소 있었으나 한 권의 책에 그 전체의 모습을 체계적으로 담으려는 시도는 거의 없었다는 점에서 매우 반가운 일이라 하겠다.

한 철학자의 전체 모습을 가늠해 본다는 것은 어떤 경우에도 쉽지는 않은 작업일 것이다. 그런데 그 철학자가 플라톤인 경우에는, 그의 저술이 대화편 형식을 띠고 있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어려움을 넘어서는 특별한 어려움이 더해진다. 플라톤의 저작들이 대화편이라는 사실이 갖는 의의와 함축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으나, 플라톤 철학의 전체 모습을 파악하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대화편의 등장인물이 하는 이야기들이 그 대화편의 맥락 속에서만 온전히 평가될 수 있다는 점을 우선적으로 지적할 수 있겠다. (대부분의 경우 소크라테스인) 대화편의 주인공이 하는 이야기와 저자인 플라톤의 생각을 어느 정도 동일시할 수 있는가 하는 근본적인 문제를 차치하고서라도, 비슷한 이야기가 서로 다른 대화편에 등장하는 경우에 그 이야기가 등장하는 맥락에 따라서 서로 다른 뉘앙스를 가지게 되는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어려움을 근거로 개별 대화편들을 넘어서서 “플라톤의 철학”을 구성하는 것이 원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주장을 하는 것은 심각한 비약일 것이다. 하지만 적어도 플라톤의 철학을 재구성하는 작업을 시도함에 있어서는, 예컨대 칸트의 철학을 재구성하는 작업에서보다 훨씬 더, 이야기가 주어진 맥락(플라톤의 경우 대화편 내에서의 대화의 맥락)에 대한 세심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것은 분명한 일이다.

『플라톤: 서양철학의 기원과 토대』는 윤리학, 인식론, 존재론, 정치철학, 우주론 등의 주제별로 플라톤의 철학을 다루고 있지만, 각각의 주제를 다룸에 있어서 대개의 경우 구체적인 대화편의 분석을 통해서 그런 작업을 수행한다. 플라톤 철학의 전체조망과 관련해서 위에서 언급한 문제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방식을 택한 것은 적절한 선택이었다고 생각된다. 물론 플라톤 철학의 전체모습을 조망하는 글이

반드시 대화편별 분석을 통해서 문제에 접근하는 방식을 택해야 한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러한 방법은 여러 대화편을 관통하는 문제를 다루는 데에는 다소 부적절할 수도 있고, 또한 그런 글이 전문 연구자나 혹은 그에 준하는 교양을 갖춘 사람들을 일차적인 예상 독자로 삼고 있는 경우에는 대화편의 맥락을 일일이 거론하는 것이 거추장스러운 일일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각 대화편의 맥락을 잘 알고 있지 못하는 일반 독자들까지도 그런 글의 예상 독자에 포함시키고 있는 경우에는, 대화편별 분석을 통한 접근 방식이 가지는 순기능이 더 크다고 생각된다. 『플라톤: 서양철학의 기원과 토대』는 그러한 일반 독자들에게는 플라톤 철학에 대한 심화된 소개서의 역할도 담당할 수 있을 것이다.

『플라톤: 서양철학의 기원과 토대』는 주제별로 6부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부는 다시 2~3장의 소주제를 다루는 부분을 포함하고 있다. **1부 “플라톤의 생애와 철학에 대한 개관”**에서는 우선 플라톤이 활동했던 시대적 배경과 플라톤의 생애, 저술들과 저술 시기, 플라톤 철학에 대한 몇 가지 해석의 노선들이 소개되고 나서(1장), 동굴의 비유를 통해서 플라톤 철학의 전모가 간략히 소개되고 있다(2장). **2부 “윤리적 삶에서 인식과 이익”**은 『프로타고라스』편에서 지행합일이론이 어떻게 다루어지는지를 살피고, 지행합일이라고 할 때 플라톤이 이야기하는 지식이 무엇을 할 줄 아는 앎이라는 점과 그러한 앎을 통해서 얻어지는 (통상적으로 행복이라고 번역되는) 에우다이모니아가 만족이나 쾌적함 등의 정서를 느끼는 상태가 아니라 역동적인 활동성을 나타낸다는 점을 지적한다(3장). 그리고 나서, 『고르기아스』편에서 관습적 정의와 자연의 정의를 구분하고 강자가 더 많이 갖는 것이 자연의 정의이자 그것이 진정한 정의라는 칼리클레스의 주장을 소크라테스가 어떻게 다루는지에 대한 분석을 제시한다(4장). **3부 “정신의 지향성”**은 『향연』편의 전체적인 분석을 통해서 플라톤이 에로스를 논의의 주제로 삼아 인간 정신의 기본적인 성향을 어떻게 규명하고 있는지를 설명하고(5장), 『파이돈』편에서의 상기설 논증 분석

을 통해서 경험적 인식의 불완전성, 인식의 선험성, 반영으로서의 인식 등 상기설 논증의 함축과 의의 등을 고찰한다(6장). 그리고 나서, 『국가』 6권에 나오는 최상위 존재로서의 좋음의 이데아에 대해서 소개하고 플라톤의 좋음의 이데아와 칸트의 선의지를 간략하게 비교하면서 맺는다(7장). 4부 “**형상의 존재론**”은 플라톤 철학의 핵심이라고 할 만한 이데아론에 대해서 다루는데, 『파르메니데스』, 『테아이테토스』, 『소피스트』 등에 기초한 논의를 하지만, 여기에서는 개별 대화편의 분석보다 플라톤 철학 내에서 이데아가 가지는 기능과 역할, 그것이 가지는 난점과 그에 대한 플라톤의 해결 등에 대해서 검토한다(8, 9장). 그리고 나서, 플라톤의 형상개념에 의해 주제화된 보편자 문제가 이후의 철학사에서 어떻게 전개되어왔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논의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남경희 선생님 자신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개략적으로 제시한다. 남경희 선생님의 앞으로의 연구 계획과 방향을 엿볼 수 있는 부분이다(10장). 5부 “**국가에서 정의와 이성**”은 플라톤의 주저라고 할 수 있는 『국가』편을 논의의 바탕으로 삼아서 정의론과 유토피아론을 다룬다. 우선 플라톤이 국가에서의 정의와 개인의 정의를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를 살피고, 정의에 내면성의 계기와 사회성의 계기가 공존함을 해명한다(11장). 그 다음에 국가의 정의와 개인의 정의의 관계에 대한 논의를 통해서, 그것이 당위적이고 본질적인 관계임을 밝힌다(12장). 끝으로 플라톤의 이상국론과 다른 철학자들의 이상국론을 간략하게 비교하고, 새로운 이상국론이 가져야 할 모습을 개략적으로 제시한다(13장). 6부 “**세계 구성의 원리**”는 우선 『티마이오스』편에서 개진되는 우주론을 소개하고, 여기에서 플라톤이 가지는 주된 관심은 자연세계의 존재 이유에 대한 관심임을 밝힌다. 그리고 진정한 원인 혹은 존재 이유와 보조원인의 구별에 대해서 설명한다(14장). 끝으로 세계의 두 원인으로서는 지성과 방황하는 원인의 관계를 설명하는데, “우연적 필연”이라는 개념을 도입해서 『티마이오스』편에서 방황하는 원인이 어떤 의미에서 필연이라고 이야기될 수 있는지를 해명한다(15장).

전술했듯이, 『플라톤: 서양철학의 기원과 토대』는 플라톤 철학에 대한 심화된 소개서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그러한 역할을 담당하기 위해서는 특히 1부에 담긴 내용이 필수적이라고 하겠다. 그런데 바로 그러한 관점, 즉 플라톤 소개서의 역할이라는 관점에서 1부의 내용은 몇 가지 아쉬운 점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우선 이 책은 플라톤 저작들의 저술시기에 대해서 학자들 사이에 대체적인 합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는데, 이는 최근의 연구동향을 반영하고 있지 못한 이야기이다. 문체 비교 등을 통해서 저술의 연대기를 확정하고자 하는 시도는 한 때 유행이었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100여년에 걸쳐서 그러한 시도가 이루어지고 나서 최근에 대체적으로 합의된 사항은 오히려 후기 저작 6편(『법률』, 『소피스트』, 『정치학』, 『크리티아스』, 『티마이오스』, 『필레보스』 - 가나다 순)을 제외하고는 이런 방식으로 저술시기를 확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¹⁾ 심지어 학자들에 따라서는 ‘초기 대화편’이나 ‘중기 대화편’ 등 시기를 규정하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 자체가 정당화되지 못하고 단순히 ‘소크라테스적 대화편’과 ‘비-소크라테스적 대화편’처럼 문체를 규정하는 표현만이 정당하게 사용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 학자도 있을 정도이다.²⁾

대화편의 저술 시기 문제는 보기에 따라서는 다소 지엽적인 문제라고 할 수도 있겠다. 하지만 2장 3절에서 형상론의 성격에 대해서 논의하는 부분과 관련한 문제는 지엽적인 문제라고 하기 어렵다. 이 부분에서는 우선 형상이 플라톤 철학 체계 내에서 존재론적, 인식론적, 윤리학적, 의미론적 기능을 모두 수행한다는 지적이 있는데, 이는 논평자가 보기에도 옳은 지적으로 생각된다. 문제는 의미론적 기능

1) 이 책에서는 (1950년대의 논쟁을 근거로) 저작시기에 대해서 논란이 있는 유일한 대화편이 『티마이오스』 편인 것처럼 이야기되고 있으나, 최근에는 오히려 『티마이오스』 편이 상대적으로 저술시기가 분명한 쪽에 속하는 몇 안 되는 대화편 중 하나라는 데 합의가 이루어져 있다는 것은 다소 아이러니다.

2) Cf. John M. Cooper (ed), *Plato: Complete Works*, Introduction, xii-xviii.

이 나머지 세 기능을 포섭한다(90쪽 이하)는 추가적인 주장이다. “경험세계가 어떻게 [규정적인] 모습을 가질 수 있는냐는 질문은 경험세계에 대한 기술…이 어떻게 의미를 가지느냐는 질문과 동일하다”거나, “가치 기준의 존재에 관한 물음은… 윤리적 언명이 의미 있는냐는 물음과 같은 종류의 해답을 요구한다”(92쪽)는 주장 등은 대단히 논란의 여지가 많은 주장들이다. 더구나, 이 모든 질문들에 대한 대답이 결국 이데아를 통해서 주어진다는 점에서 이 질문들이 결국 같은 종류의 질문들이 된다는 이야기를 어느 정도 할 수 있는지는 몰라도, 이것으로부터 이데아의 여러 기능이 의미론적 기능에 포섭된다는 결론을 이끌어낼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 그러한 추론이 가능하면, 똑같은 논리에 따라 거꾸로 의미론적 기능이 다른 기능에 포섭된다고 할 수도 있을 것이 아닐까? 어떤 두 종류의 질문이 같은 질문이 된다는 것은 이 중 어느 질문이 포섭 관계에서 우선성을 가지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이야기를 해 주지 않는 것이다. 이런 문제들에도 불구하고 이 책은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플라톤의 문제를 언어의 가능 근거에 대한 문제라고 진단한다. 이에 대해서는 형상의 존재론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4부를 논의하면서 다시 생각해 보기로 하겠다.

2부, 3부, 5부, 6부는 모두 특정 대화편의 분석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물론 분석의 중심을 이루는 대화편이 아닌 다른 대화편에 대한 논의도 포함되어 있고, 또 다른 철학자(많은 경우 비트겐슈타인)와의 비교도 종종 이루어지고 있으나, 논의의 중심축은 특정 대화편에 대한 해석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여기에서 개진되는 각 대화편들의 해석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이다.³⁾ 하지만 여기에서의 해석들이 대체적으로 표준적인 해석을 따르고 있거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표준적인 해석에서 그렇게 크게 벗어나지는 않는 것

3) 뒤에서 보겠지만, 이 책에서 제시되는 상기론에 대한 해석은 이상인 선생님의 해석과 거의 정반대라고 할 수 있다.

들인 만큼, 이견을 가지고 있는 연구자들에게도 적어도 진지하게 고찰할 만한 논의의 출발점들을 제시해 주고 있다고 하겠다. 또한 같은 이유에서 초심자들에게는 각 대화편들을 소개해 주는 역할을 적절히 담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논평자 역시 여기에 등장하는 구체적인 해석들 중에서 생각을 달리하는 부분들이 있기는 하지만, 이들은 이 자리에서 논할 성질의 것들은 아닌 것 같다.

논평자가 간략하게나마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4부와 관련된 것이다. 남경희 선생님은 “형상들의 존재가 언어와 정신의 가능성을 확고하게 설명해 준다”(293쪽)는 것을 형상론의 가장 중요한 기능으로 간주한다. “플라톤의 일차적이고 핵심적인 문제는 대화의 가능성 문제이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플라톤은 이데아의 존재를 상정했다”(302쪽)는 것이고, 이에 따라서 의미론적 원자론과 지시론적 의미론이 이데아론의 핵심이 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의미론적 원자론과 지시론적 의미론은 플라톤을 곤경에 빠뜨린다고 한다. “명제 자체보다 그의 요소인 개념에 대한 관심이 플라톤으로 하여금 명제의 또 다른 조건, 즉 명석 판명한 의미들이 상호 결합되어야 한다는 조건을 간과하게 [해서]… 애당초 형상들의 존재를 상정하게 한 그 과제, 즉 명제 가능성의 근거를 마련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게”(330쪽) 되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해석 틀에서 플라톤 후기의 형상 결합 문제는 “명확하고 일정한 의미를 지닌 명제들”의 가능성 문제가 되고(317쪽), 형상들의 결합 가능성 여부가 바로 의미 있는 문장과 그렇지 않은 문장을 가름하는 기준이 된다.

플라톤이 언어에 대한 큰 관심을 가졌다는 것은 부정하기 어렵다. 또한 현대의 언어철학적 틀을 가지고 볼 때, 플라톤이 언어에 대해 가지고 있는 생각이 지시론적 의미론으로 분류될 수밖에 없으리라는 데에 동의하며, 나아가서 그것을 의미론적 원자론으로 볼 수 있는 여지가 많다는 데에도 상당 부분 공감한다. 하지만 애초에 현대의 언어철학적 틀을 가지고 플라톤을 보는 것이 온전히 유효한 방식인지에 대한 의구심이 생긴다. “지시론적 의미론”이니 “의미 원자론”이니 하

는 것은 일차적으로 현대에 마주친 특정한 철학적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제시된 특정한 철학적 입론들에 대한 이름들이다. 그러한 틀을 가지고 플라톤의 생각을 한 번 검토해 보는 것이 플라톤에 대한 이해를 진작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 자체를 부정하고 싶지는 않으나, 그 틀을 전면에 내세워 플라톤이 마주한 문제와 그가 제시하는 해결 전부를 그 틀 안에서 고찰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한다. 남경희 선생님도 곳곳에서 플라톤이 근본적으로 존재론자임을 명시하고 있는데(예컨대, 127-128쪽, 391쪽 등), 막상 플라톤 존재론의 핵심인 이데아론을 설명하는 맥락에서 의미론을 강조하고 있는 것은 다소 의아한 일이다.

논의가 추상적으로 흐르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예를 몇 가지만 간단히 들어보기로 하겠다. 형상들의 범위와 관련한 문제를 언급하면서 남경희 선생님은 “의미의 원자론과 의미의 지시설을 함께 취할 때… ‘악하다’, ‘나쁘다’… 등과 같은 부정 술어의 문제, ‘전화기’, ‘시계’… 등과 같은 인공물의 이름과 관계된 문제, ‘먼지’, ‘흙’ 등과 같이 하잘 것 없는 사물들의 이름에 대응하는 형상이 존재하는가의 문제 등등”(303쪽)의 문제들이 발생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논평자는 이들 문제가 왜 의미의 원자론/지시설과 관련된 문제인지에 대한 설명을 찾을 수 없었다. 물론 9장에서 “형상들의 원자성”과 “형상들의 자체성”이 논의되고, 이러한 형상들의 성격이 어떻게 해서 남경희 선생님이 “원소의 역설”이라고 부르는 것에 이르게 되는지에 대한 설명이 제시된다. 논평자가 발견할 수 없었던 것은 일반적인 설명이 아니라 바로 위의 인용문에서 제시된 문제들이 의미의 원자론과 지시론적 의미론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한 설명이다. 논평자의 생각으로는 오히려 이들 문제가 지시론적 의미론과 별 상관이 없으며, 인공물의 경우에서 생기는 문제를 제외하고는 의미 원자론과도 별 상관이 없는 것 같다. 이러한 사실은 플라톤이 스스로 형상들의 범위 문제를 다루고 있는 (그래서 남경희 선생님도 전거로 삼고 있는) 『파르메니데스』 130a-c에서의 논의에서 보다 분명

해지는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서 소크라테스는 정의로움, 아름다움, 좋음 등의 형상들이 있느냐는 파르메니데스의 질문에 그렇다고 대답하고 나서 사람, 불, 물 등의 형상들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잘 모르겠다고 대답한다. 이 대화에서 시사되는 것은 전자의 부류에 해당하는 형상들의 존재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으나, 후자의 부류에 해당하는 형상들의 존재에 대해서는 약간의 의심거리가 있다는 것이 되겠다.⁴⁾ 그런데 전자의 부류와 후자의 부류 사이에 의미 원자론이나 의미 지시설과 관련한 차이는 찾기 어려운 것으로 생각된다. 형상론과 관련해서 플라톤 자신이 명시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문젯거리, 혹은 의심거리가 의미 원자론/지시설과 별로 큰 상관이 없다면, 그것은 애초에 형상론을 의미 원자론/지시설과 연결시키려는 해석이 무리가 있다는 증거가 되지 않을까 한다.

한 가지 예만 더 들어보자. 남경희 선생님은 “사과가 달콤하다”, “사과는 삼각형이다”, “삼각형은 달콤하다”와 같이 참인 문장, 거짓인 문장, 무의미한 문장을 열거하고, 처음 두 문장이 유의미한 것은 주어와 술어에 해당하는 형상이 결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고, 세 번째 문장이 무의미한 것은 주어와 술어에 해당하는 형상이 결합할 가능성이 없기 때문이라고 한다(332쪽). 그리고 이런 주장을 통해서, 플라톤 후기의 형상 결합의 문제를 유의미한 명제의 기준 문제로 간주한다. 그런데 형상의 결합 가능성에 대해서 논의되는 (그래서 남경희 선생님도 전거로 삼고 있는) 『소피스트』 252-3에서 모든 것이 서로 결합할 가능성을 가지는 경우의 문제로 이야기되는 것은 삼각형과 달콤함의 결합 같은 것이 아니라 운동과 정지의 결합이다. 운동이 정지하고 정지가 운동한다는 것은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이들이 결합할 수 있다는 것을 함축하는) 모든 것이 서로 결합할 수 있다는 생각은 틀렸다는 것이다(252d). 여기에서의 논의는 일단 명제 차원이

4) 이 이야기 다음에 바로 남경희 선생님이 언급하고 있는 문제 중의 하나인, 먼지, 흙 등과 같이 하잘 것 없는 것들의 형상이 존재하는지에 대한 질문이 제기되고 소크라테스는 그렇지 않다고 대답한다.

아니라 사태 차원의 논의로 생각된다. 하지만 이 논의를 사태 차원이 아니라 명제 차원으로 옮겨서 본다고 하더라도, 여기서의 문제는 “운동이 정지한다”는 명제가 무의미하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명제가 참일 가능성이 없다는 것이다.⁵⁾ 물론 무의미한 명제는 당연히 참일 가능성도 없을 것이다. 하지만 그 역은 성립하지 않는다. 모순을 함축하는 명제가, 그렇다고 해서 무의미한 명제가 되는 것은 아닌 것이다. 그리고 인용된 구절은 명백히 운동과 정지의 결합이 모순을 야기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플라톤의 관심의 초점은 명제차원에서 볼 때에도 명제의 진리가능성에 놓여있다고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명제의 진리가능성과 명제의 유의미성 사이에 특별한 연관관계가 있다는 것을 전제하지 않는 한 플라톤이 명제의 유의미성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고 볼 적극적인 증거는 없는 것이다. 명제의 유의미성이 명제의 진리성의 전제조건이 된다는 생각은 20세기 초반 분석철학 계열의 학자들에게 있어서는 매우 중요한 생각이었으나 플라톤도 그런 문제의식을 공유했다는 증거는 논평자로서는 찾기 어렵다.

책의 머리말에서 밝혀져 있듯이, 남경희 선생님이 주로 관심을 가지고 연구한 철학자는 플라톤과 비트겐슈타인이다. 작년 말에 남경희 선생님의 『비트겐슈타인과 현대철학의 언어적 전회』가 출간되기도 했다. 그 책과 지금의 이 책에서 남경희 선생님은 “이 두 탁월한 철학자들에 대한 연구를 통해… 서양철학사의 기본구조와 사유범주를 이해하며 큰 그림을 그려보고자 했다”고 밝히고 있다(6쪽). 그래서인지, 『플라톤: 서양철학의 기원과 토대』에서는 전반에 걸쳐서 비트겐

5) “운동이 정지한다”는 명제도 범주착오를 범하고 있는 “무의미한” 명제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으나, 이 명제가 “아름다움이 아름답다”는 명제보다 특별히 더 범주착오를 범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이런 명제들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하는 것은 플라톤 해석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 중 하나이지만, 올바른 해석이 될 수 있는 첫 번째 기준은 양자를 모두 범주착오를 범하고 있지 않은 방식으로, 즉 “무의미”하지 않은 방식으로 이해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 될 것이다.

슈타인에 의해 대표되는 언어적, 분석적 방법의 흔적을 읽을 수 있다. 그리고 그런 경향이 가장 두드러진 곳이 바로 4부가 아닌가 싶다. 4부의 경우는, 단지 분석적 방법을 플라톤 해석에 적용하는 해석의 전통을 읽고 있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비트겐슈타인의 눈을 통해서 플라톤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조심스럽게 제기해 본다.

3.

후대의 눈을 통해서 플라톤을 비롯한 고대철학을 보는 것을 경계하는 것은 이상인 선생님의 『플라톤과 유럽의 전통』의 중심목표이다. 『플라톤: 서양철학의 기원과 토대』가 플라톤을 처음 접하는 사람들과 지도 예상 독자군에 포함시키고 있다고 한다면, 『플라톤과 유럽의 전통』은 플라톤을 어느 정도 접해본 사람들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책의 서문에는 “이차 문헌에 의존해서 플라톤에 접근하면 할수록 대화편에서 직접 만난 플라톤의 모습과 무언가 일치하지 않음을 직감할 수 있었”(15쪽)던 저자의 경험 이야기가 나온다. 이 책은 그러한 경험을 공유하는 사람들에게 일차적인 호소력을 가진다.

철학사를 기술한 책이나 기타의 이차문헌을 통해서 어떤 철학자를 접할 때는 언제나 내가 이차문헌의 저자의 눈을 통해서 보는 철학자의 모습이 그 철학자의 진짜 모습일지 하는 걱정이 마음 한 구석에 있기 마련이다. 그런데 이러한 걱정이 원전을 읽는다고 해서 말끔히 해소되는 것은 아니다. 어떤 이차문헌의 저자가 원전을 읽고 오해했을 가능성이 있다면, 나 자신도 원전을 읽으면서도 그 철학자의 진짜 모습을 파악하지 못할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을 것이다.

이러한 원론적인 지적이 하릴없는 뉘두리가 되지 않으려면, 그들도 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물음에 답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플라톤과 유럽의 전통』은 그러한 대답의 한 단초를 시사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오해의 가능성은 어디에나 있고, 누구도 이로부터 완전히 자유롭지는 못하다. 그저 보다 주의를 기울여서 오해를 피하려고 노력해 볼 수 있을 따름이다. 그런데 노력한다고 해서 사정이 나아진다는 보장이 없는 종류의 오해가 있다. 우리가 부지불식중에 가지고 있는 전제들 때문에 생기는 체계적인 오해의 경우가 그런 것이다. 체계적인 오해가 있는 경우, 그러한 사실을 자각하지 못한 상태에서 정확한 이해를 위해 노력하는 것은 오히려 더 오해의 정도를 더해가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는 것이다. 때문에 이러저러한 체계적인 오해의 정체를 근거를 파악하고 그것을 해소하는 것이 어떤 철학자의 참모습을 파악하고자 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일일 것이다. 『플라톤과 유럽의 전통』에서 이상인 선생님은 그동안 철학사가와 주석가들이 ‘안’과 ‘밖’의 근대적 구별을 전제하고 플라톤을 비롯한 고대철학을 고찰함으로써 체계적인 오해가 생겼다고 주장하며, 독자적인 텍스트 분석과 (근대적 전제에 오염되지 않은) 고대 주석가들의 해석 등의 도움을 얻어서 그러한 오해를 해소시키려 한다.

『플라톤과 유럽의 전통』은 전부 5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1장 “고대와 근대”는 근대가 중심에 놓이는 철학사의 서술에서 철학사는 전환과 극복의 역사로 파악되고 고대는 단지 근대의 전 단계로서만 의미를 가지게 된다는 것을 역설한다. 그리고 이것을 헤겔의 역사이해와 그의 고대 해석을 통해서 예증한다. 2장 “지각과 이성”은 수동적인 것으로서의 지각과 자발적인 것으로서의 이성이라는 근대적 이분법이 고대 지각이론을 해석하는 기본 틀이 되어왔음을 지적한다. 그리고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지각이론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사실은 이들이 지각과 이성을 상대적 차이를 지니는 인식의 두 단계로 이해하고 있었다고 주장한다. 3장 “인식과 방법”에서는 우선 철학사에서 상식처럼 되어 있는 해석, 즉 플라톤을 ‘두 세계 이론’을 제시한 대상 형이상학자로 보는 해석이 플라톤의 인식이론을 과소평가하도록 만들었다는 지적이 이루어진다. 그리고 나서 상기론을, 플라톤

자신의 초기 변증법을 발전적으로 계승하고 아리스토텔레스를 비롯한 후대의 철학자에게 지대한 영향을 끼친, 추론을 통한 탐구의 가능성과 방법에 대한 이론으로 보는 독창적이고 흥미로운 해석이 제시된다. 4장 “경험과 과학”은 과학의 계통적 통일을 향한 고대의 통일 과학 이념을 소개하고, 그러한 이념을 개념적으로 해명하는 일, 즉 과학적 인식의 문제가 플라톤의 주요문제였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플라톤이 과학적 인식의 조건으로 제시한 이론성, 보편성, 방법적 엄밀성의 세 조건이 어떤 방식으로 철학과 보편 수학에 요구되었는지를 살핀다. 그리고 나서, 근대 이전의 연역적 과학 이념이 니코마코스의 수학과 히포크라테스의 의학에서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지 해명한다. 5장 “개인과 국가”에서는 개인과 국가 간의 외면적 관계가 전제되고 있는 근대적 국가 이해에 반해, 플라톤(을 비롯한 고대 그리스인들)은 개인의 목표와 국가의 목표가 상충한다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우선 지적된다. 인간은 다양한 필요를 가지고 있고 그 필요들을 스스로 다 충족시킬 수 없는 한에서 부자유하며, 따라서 선천적으로 자유로운 존재로서의 개인들이 자신들의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서 국가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선천적으로 결핍되어 있는 개인들이 자신들의 결핍을 보완하기 위해서 국가가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플라톤의 국가는 개인 간의 우정 관계 확립이라는 목적과 과제를 가지고, 이러한 과제는 교육을 통해서 수행된다고 한다.

『플라톤과 유럽의 전통』의 중심 부분은 3장이라고 할 수 있다. 1장에서 근대적 역사이해의 가장 중요한 잘못으로 지적된 것은 그것이 고대를 “주관성이 발현되지 않는 무지몽매하고 소박하며 천진난만한 “객관성의 시대”로 낙인”찍었다는 것이다(68-69쪽). 이러한 오해의 생산/재생산 구조를 이상인 선생님은 다음과 같이 재구성한다. “근대의 주관적 전환[은]… 자발적 오성의 자유를 확보하기 위해 감성을 철저히 수용적 능력으로 격하[시키고],…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지각이론에서 수용적 측면을 집중적으로 발굴”(66쪽)해서 거기에서 근대의 맹아를 찾았다. 일단 고대의 지각이론이 철저하게 수

용적인 것으로 파악되고 나서는, 이성적인 인식의 경우도 “직관 능력 바깥에 존재하는 것의 직접적 수용”으로 파악되고, 이에 따라 플라톤은 “이성적 사유의 본질을 정신적 관조나 지적 직관으로 규정하는 전통”(67쪽)의 시원으로 자리매김 되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의 관점에서 보면, 이상인 선생님이 2장에서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에게 있어서 지각이 단순히 수용적인 능력이 아니라 “영혼의 구별이 개입한다는 점에서… 영혼의 자발적 인식 방식에 속한다”(87쪽)는 것을 밝히는 것은 3장의 논의를 준비하는 측면이 있다. 지각조차도 단순한 수용적 능력이 아니라면, 이성의 인식이 단순히 이데아를 수용적으로 직관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울 것이다. 실제로 3장에서 제시되는 이상인 선생님의 상기론 분석은 상기가 영혼이 태어나기 전에 수용적으로 직관한 이데아에 대해서 나중에 기억해내는 것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보이는 데 역점을 두고 있다. 이상인 선생님이 따르면, 상기론은 그것을 싸고 있는 신화적 외피를 걷어내고 보면 사실은 이성적 사유의 소질을 발휘해서 새로운 지식을 얻어가는 방법에 대한 이론이 된다. 그리고 4장에서의 논의는, “제기된 문제로부터—문제 해결이라는 탐구 목적의 성취를 위해—보다 단순하고 보편적인 원리들로 역진적으로 운동하는 “분석”과 이 분석으로부터 개별적인 탐구 대상으로 복귀하는 “종합”으로 이루어진 플라톤의 상기”(238쪽)가 고대의 구체적인 과학 방법론에서 어떻게 표준적 모델로 작동하고 있었는지를 밝히는 작업이라는 점에서, 3장에서의 논의를 이어가고 있는 측면이 있다. 5장의 논의의 경우, 이것이 3장과 직접적 관계를 맺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이 장이 마지막 장이라는) 책의 편제에 있어서나 (전체의 10분의 1이 되지 않는) 5장에 할당된 분량에 있어서나, 5장은 근대적 전체를 가지고 플라톤을 보았기 때문에 발생한 추가적인 문제에 대한 논의 정도로 볼 수도 있을 것 같다.⁶⁾ 그런 점에서 여전히 3장이 책의 중심 부분이라고 이

6) 5장의 내용들에 논평자가 가장 크게 공감했다는 점에서 개인적으로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이다. 4장에서 길게 소개되고 있는 니코마코스과 히포크라테

야기하는 것은 문제가 없을 것이다. 3장의 내용은 책의 중심일 뿐만 아니라, 한 편으로 책의 전체 내용 중 가장 흥미로운 것이지만, 다른 편으로는 가장 논란의 여지가 많은 부분인 것으로 보인다.

3장에서 제시되는 해석 중에서도 가장 논란의 여지가 큰 부분은 역시 두 세계 형이상학과 관련한 것이다. 이상인 선생님은 전통적인 해석이라고 할 수 있는 형이상학적 플라톤 해석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형이상학적 플라톤 해석의 가장 큰 문제로 이상인 선생님이 지적하는 것은, “그것이 플라톤 연구의 방향이나 주제를 설정하는 데도 하나의 포괄적인 기준으로 작용”하면서 플라톤 철학의 다른 측면들은 두 세계 형이상학을 보조하는 이차적인 것들로 해석하게 만들었다는 것이다(152쪽). 그리고 특히, 그 결과 플라톤이 인식의 가능성과 한계에 대한 체계적이고 비판적인 반성을 결여하고 있는 것으로 오해되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상인 선생님이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는 해석에서는 거꾸로 인식론을 플라톤 철학의 본령으로 올려놓으면서 형이상학적 측면을 보조적이고 이차적인 것으로 만드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생긴다.

플라톤이 ‘두 세계 이론’을 제시했다는 해석의 가장 중요한 전거는 『국가』 5권의 논의일 테고, 이상인 선생님의 대안적 해석은 바로 이 부분에 대한 논의로부터 시작된다. 이상인 선생님이 따르면, “의견과 인식, 그리고 그 대상에 관한 『국가』의 구별이 단순히 의견에 사물이, 인식에 저 세계의 형상이 대응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211쪽). 의견을 인식(眞)으로 전환하는 플라톤의 과제에 비추어 볼 때, 의견과 인식(眞)이 관계하는 대상은 동일해야 하며, “동일한 대상을 지향하는 연속적·통일적 인식의 길 위에서 상이한 인식 단

스에 대한 논의는 그 자체로 흥미롭고, 논평자 개인적으로는 잘 알고 있지 못하던 내용을 배운 점도 많았다. 하지만 이 부분의 논의가 책의 4분의 1 가량을 할당할 만큼 이 책의 전체에서 중심적인 주제였는지는 좀 의문스럽다. 반면에 5장의 논의는 지나치게 간소화 되어있다. 4장 말미의 논의를 좀 줄이고 5장의 논의를 보다 확장했다면, 책이 보다 균형 잡힌 모습을 갖추게 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계들이 나타나는 것도 사물과 형상이라는 상이한 “대상 영역”이 존재하기 때문이 아니라, 동일한 사물에 대해 상이한 “인식 능력”과 상이한 “인식 결과”가 존재하기 때문”(212쪽)이라는 것이다. 더 나아가 이상인 선생님은, “플라톤이 “많은 아름다운 것들”이 아름다운 것“이면서 이지 않다”고 말할 때는… 사물들의 모순성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각을 통해 판단하는 우리의 영혼 능력, 즉 의견의 상태”(215쪽)의 모순적 혼란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상인 선생님의 이러한 텍스트 이해는 『국가』 7권에 등장하는 손가락의 예에 대한 해석에서 정점에 달한다. 이상인 선생님에 따르면, 지성은 “약손가락을 그것의 규정성을 형성하는… 보편적 원리들에 의해 한정된 사물로 인식하[고], 이렇게 인식된 “양에 있어서 다른 것을 능가하는 한 크고 능가되는 한 작은 약손가락”이 플라톤이 말하는 “노에톤”이다”(221쪽). 요컨대 인식대상으로서의 노에톤 혹은 형상은 저 세계에 있는 어떤 것들이 아니라 “어떤 것으로 규정된 개별자”, 즉 “큰 약손가락”이라고 할 만한 것”(221쪽)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이런 해석에서, 예컨대 『파이돈』 102 이하에서 중요하게 구별되는 심미아스 안에 있는 큼과 큼의 형상에 대한 구별이 어떻게 견지될 수 있는지 궁금하다. 형상은 물론 사물을 규정하는 원리이다. 하지만 형상이 단순히 사물의 규정성에 불과하고 독자적인 존재론적 지위를 갖는 것이 아니라면, 큰 약손가락 안에 있는 큼과 큼의 형상 사이에는 아무런 구별이 없을 것이다. 이들의 차이는 바로 전자는 소멸가능한데 비해서 후자는 소멸가능하지 않는다는 존재론적 차이일 것이기 때문이다. 논평자도 『국가』 5권에 대한 전통적인 해석이 『메논』편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의견에서 앎으로의 전환을 설명하기 어렵게 만드는 측면이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 하지만 그러한 사실이 『국가』 5권의 존재론을 『메논』의 인식론에 종속시키는 해석을 정당화해주는 것은 아니다. 이 자리에서 자세히 논의할 수는 없으나 (바로 손가락의 예가 등장하는) 『국가』 6-7권에서의 인식의 4단계 구별은 형상과 사물의 존재론적 구별을 그대로 두면서 의견에서 인식으

로의 전환을 설명하기 위해서 도입된 측면이 있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계기가 고려되지 않은 결과, 3장에서의 손가락의 예에 대한 논의도 그 예를 통해서 플라톤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의 핵심을 놓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다. 이상인 선생님은 “지성은 사물이 모순적이기 때문에 개입하는 것이 아니라, 지각 판단의 인식 내용이 모순적이기 때문에 개입한다”(215쪽)고 주장하는데, 이 주장은 손가락의 예를 들면서 소크라테스가 이야기하는 두 종류의 지각 판단의 차이를 간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소크라테스는 약손가락을 손가락이라고 보는 지각 판단은 그 자체로 충분해 보이기에 앞으로의 상승을 촉발하지 않는데, 약손가락을 큰 것으로 보는 지각 판단은 그 자체로 충분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앞으로의 상승을 촉발한다고 이야기한다(523a-e). 이 두 종류의 지각판단은 모두 지각 판단, 즉 형상인식이 없는 판단이라는 점에서는 차이가 없다. 충분성과 관련해서 양자 사이에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약손가락은, 그것이 존재하는 한, 항상 손가락인 것이기는 하지만, 항상 큰 것은 아니라는 점에 있다. 이렇게 본다면, 방금 인용한 이상인 선생님의 주장은 반만 맞는 것이다. 지각 판단이 혼란스럽기 때문에 지성이 개입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한 혼란은 사물 자체의 혼란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고, 결국 지성은 사물이 혼란스럽기 때문에 개입한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⁷⁾ 요컨대, 플라톤에게 있어서 인식론과 존재론은 함께 가는 것이지만 인식론이 존재론에 우선하는 것이 아니다.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해 보자. 이 책에서 제기되고 있는 상기론에 대한 해석은 『메논』편의 분석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그에 대한 정당한 평가는, 당연하게도, 『메논』편을 살펴보지 않고서는 이루

7) 이상인 선생님은 “모순”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으나, 논평자는 “혼란”이라는 표현으로 바꾸었다. 엄밀한 의미에서 보자면, 사물에도 모순이 없고 지각 판단에도 모순이 없다. (따라서 사물에는 모순이 있을 수 없다는 이상인 선생님이 고찰은 옳지만, 그것이 이상인 선생님의 논점을 강화해 주지는 못한다. 지금 문제되고 있는 지각 판단들 역시 모순적인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어질 수 없을 것이다. 유감스럽게도 여러 가지 사정상 이 자리에서 그에 대해 직접 논의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⁸⁾ 다만, 누가 어떤 해석을 제시하더라도 『메논』편에서의 상기론이 기본적으로 인식의 방법에 대한 이론이라는 이상인 선생님의 주장을 부정할 수는 없을 것이라는 점은 분명해 보인다. 그런데 『파이돈』에서의 상기에 대한 논의에 대해서도 같은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이상인 선생님에 따르면, “『파이돈』의 상기는… 지각 인식의 가능성의 조건에 관한 이론”(246쪽)이다. 이런 주장을 부정하고 싶지는 않으나, 이 주장이 『파이돈』에서의 상기에 대한 논의가 가지는 계기를 전부 설명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논평자가 문제 삼고 싶은 것은 이상인 선생님이 『파이돈』에서의 상기에 대한 논의 중에서 주목한 부분이 아니라 주목하지 않은 부분이다. 『파이돈』 74d-e에서 소크라테스는, 자기가 보고 있는 것(예컨대, 같은 것들)이 다른 어떤 것(예컨대, 같은 자체)과 닮은 것으로 되고 싶어 하지만 그것(같은 자체)에 미치지 못한다는 생각을 한 사람이 그것(같은 자체)을 미리 알고 있었음이 필연적이라고 이야기한다. 인식론적 측면에서 보자면, 이 구절은 지각 인식의 가능성 조건에 관한 이상인 선생님의 해석과 일관적이라고 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 구절은 중요한 존재론적 함축 또한 가지고 있다. 즉, 지각의 대상이 형상에 비해서 무언가를 결여하고 있다는 것 말이다. 그리고 이 구절은 『파이돈』의 맥락, 즉 영혼불멸을 증명하는 맥락에서는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지각 대상의 불완전성을 깨닫는 것이 바로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형상들을 알고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는데 결정적인 전제가 되는 것이다(74e9-75a3).

『파이돈』에서나 『메논』에서나 상기론은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영혼이 존재했다는 생각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 전생과 관련한 신화를 이상인 선생님은 단지 비유에 불과한 것으로 치부한다.⁹⁾ 전생과 현

8) 그러한 논의를 위해서는 서평이 아니라 독립적인 논문이 필요할 것이다.

9) 사실 『파이돈』에서는 이것이 신화로 제시된 것도 아니라, 상기론을 통해서 “증명”되는 것이다.

생이라는 “두 시간대의 “비유적인” 분리는 실제로는 선행하는 보편적 지식과 후행하는 지식의 차이에 대한 표현”(246쪽)이며, “상기를 비철학적 에피소드나 삼류 이론으로 격하시키지 않기 위해[서는] 상기에 대한 플라톤의 논증을 가능한 한 탈신화화”(225쪽)해야 한다는 것이다.¹⁰⁾ 사실 전생에 대한 이야기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는 (논평자를 포함해서) 현대의 플라톤 연구자들에게는 좀 당혹스러운 일일 것이다. 오늘날 전생과 윤회, 영혼불멸 등의 논의를 진지한 철학적 논의의 한 부분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 그다지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플라톤을 비롯한 고대인들에게도 사정이 이러했고, 이들이 전생을 이야기하는 것은 순전히 비유에 불과한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지는 좀 의문이다. 고대의 정신을 고대의 관점에서 재발견한다는 것은, 고대인의 저술 중에서 현대인인 우리의 관점에서 나름대로의 설득력을 가질 수 있는 것들에서만 저자의 진의를 찾으려는 태도와는 잘 어울리지 않는 것이 아닐까?

이 점은 이상인 선생님의 방법론에 대해서 몇 가지 생각거리를 제공해 준다. 과연 고대의 정신을 고대의 관점에서 재발견한다는 것의 정체는 어떠한 것일까? 이상인 선생님은 근대 이후의 철학사에서 고대의 인식론을 폄하하고 근대적 인식론의 맹아만을 발견하려 하는데 이의를 제기하고, 고대에도 적어도 근대적 인식론과 대등한 인식론이 있었다는 것을 밝히려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고대를 고대의 관점에서 재발견하려는 이런 노력이, 근대와의 대결의식 때문에 고대의 인식론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역효과를 내게 된 것은 아닐까? 혹은 인식론을 철학의 본령으로 삼는 근대철학의 전제를 은연중에 이상인 선생님도 공유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¹¹⁾ 이러한 생각은

10) 230-231쪽의 논의도 참조할 만하다.

11) 이상인 선생님은 플라톤에서 “einai”가 존재사가 아니라 특수한 종류의 서술적 용법으로 사용되는 “철학적 einai”라고 주장한다(159-161쪽, 주 14). 그리고 이런 생각은 3장에서 제시된 해석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그런데 어쩌면 einai의 존재적 용법과 서술적 용법을 명확하게 나누는 것 자체가 근대 이후의 태도를 반영하는 것일지도 모른다. 논평자는 개인적으로

모두 어쩌면 논평자의 오해에서 비롯된 불공정한 것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적어도 일반론으로서, 근대적 혹은 현대적 전제를 가지고 고대를 보는 것이 위험한 만큼 그것에 대한 반발도 비슷한 위험에 처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는 할 수 있을 것이다.

더 나아가, 고대의 정신을 고대의 관점에서 재발견하는 것이, 예컨대 플라톤의 진면목을 확인하기에 충분한 것인지도 의문을 제기할 수 있을 것이다. 이상인 선생님에 따르면, 스토아철학의 지각이론은 어떤 의미에서 “근대적”인 것이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근대의 관점에서 플라톤을 보는 것이 곤란한 만큼 스토아철학의 관점에서 플라톤을 보는 것도 곤란하다고 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 그러면, 이상인 선생님이 여러 곳에서 인용하는 고대 후기 주석가들의 눈으로 플라톤을 보는 것은 안전하다고 할 수 있을까? 이들은 또, 예컨대 신플라톤주의에 의해 채색된 눈으로 플라톤을 보고 있을 가능성은 없는가? 이런 생각들을 하다 보면, 결국 문제는 고대의 정신을 고대의 관점에서 재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플라톤의 정신을 플라톤의 관점에서 (또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신을 아리스토텔레스의 관점에서, 기타등등) 재발견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 이르게 된다.

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이러한 생각이 단순히 비생산적인 낚두리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플라톤의 정신을 플라톤의 관점에서 재발견한다는 것이 어떤 것일지에 대한 그림이 소묘적으로라도 그려져야 할 것이다. 이상인 선생님의 책에서 시사되고 있는 방법을 적용한다면, 우선은 텍스트를 꼼꼼히 읽는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체계적인 오해의 가능성에 대해서 끊임없이 반성해 보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 이때의 반성은 플라톤이 서 있는 전제들이 어떤 것일지에 대한 반성과 우리 자신이 서 있는 전제들이 어떤 것일지에

플라톤에서 *einai*가 소위 서술적 용법이라고 흔히 이야기되는 형식을 포괄할 수 있는 비-정언적 존재 개념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해석에서는, 예컨대 “*esti anthrōpos*”는 “사람으로 있다” 정도로 번역될 수 있겠다.

대한 반성을 모두 포함할 것이다. 논평자는 이에 덧붙여, 플라톤의 경우는 그의 저술들이 대화편들이라는 점을 보다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다. 대화의 맥락과 드라마적인 요소들을 충분히 고려하는 일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스스로 체계적인 오해를 범하고 있을 가능성을 줄여주는 데 기여할 것이다.

4.

지금까지 『플라톤: 서양철학의 기원과 토대』와 『플라톤과 유럽의 전통』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았다. 지면의 제약 때문에 두 책의 장점들을 충분히 부각시키지 못한 것 같아서 아쉽고, 문제제기라고 내놓은 것이 논평자의 무지와 오해에서 기인된 것들이 아닐까 두렵기도 하다. 적지 않은 분량의 책 두 권을 읽으면서 개인적으로 많은 것을 배웠고,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표한다.

국내 플라톤 연구에 있어서 이정표를 찾는다면, 물론 박홍규 선생님의 유고집이 될 것이다. 하지만 이 두 권의 책은 저자가 직접 구성을 담당하고 하나의 통일된 저서로 펴냈다는 점에서, 또 다른 의미에서의 이정표들이 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국내학자들의 연구서들이 계속 이어지기를 희망한다.

